

서울여성조합원대회 맞이
교육용 소책자

여성노동자를 위한 페미니즘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조합원대회 맞이 교육용 소책자 『여성노동자를 위한 페미니즘』을 발간하며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각기 다른 조건과 삶을 사는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이기에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고 단결해야 함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직업과 조건, 삶을 살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차별, 가족에 대한 책임은 여성노동자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족에서 해결하거나, 원래 그러니까 참아야 하는 문제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여성이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소책자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페미니즘이라 부릅니

다. 여성의 억압,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남녀 관계의 원인을 찾고, 바꾸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이 소책자는 페미니즘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안을 담았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여성들이 왜 공통적인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성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고 당당한 주체로 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확인한 여성노동자들의 열정과 힘이 더욱 튼튼해져서 노동조합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 페미니즘

여성운동, 여성주의, 페미니즘

여성운동, 여성주의, 페미니즘... 최근에는 많이 회자되는 말들이지만,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여성'에게 관계된 것, 여성에게 이로운 것이면 무엇이든 여성운동,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고 모두가 여성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 이롭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을 바꾸겠다며 여러 지원 대책을 세우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육아휴직제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몇 십 년 전과 비교한다면 '여자들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녀야만 하지만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몫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이 아이 낳는 것을 어려워하는 여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강화하면서, '살기 좋아진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반응도 낳고 있죠.

이렇게 여성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모두가 여성에게 좋은 효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에 관한 것, 여성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페미니즘, 여성주의인 것도 아닙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나 언론에서 여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많이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여겨지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여성운동은 무엇일까요?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과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해방, 노동해방처럼 여성해방을 하지는 운동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성해방이라는 말은 곧 여성이 현재 억압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억압받고 있습니까? 여성억압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무엇입니

까, 여성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까? 페미니즘은 이런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계집애가 배워서 뭐하냐며 여성들에게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한 성적 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해도 집에 오면 여성이 청소, 요리, 아이 돌보기와 같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심한 욕을 듣거나 심지어 구타를 당해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참고 산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그저 사람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이런 당연한 일이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억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사실은 불평등하고 어느 한 쪽이 종속적이고 억압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관계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과 운동을 만드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여성억압의 현실

여성억압이라는 표현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성억압의 현실은 여성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자본가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것 자체도 커다란 억압이고 폭력이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억압과 모순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성억압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현실이 여성의 노동과 성을 통제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출산과 양육,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집밖에서 일하든 안 하든 양육과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별분업 구조는 여성의 많은 것을 제약합니다. 우선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죠. 여성이 가족 밖의 생산노동에 종사할 때조차,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고 여성의 소득은 남편의 임금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관념에 따라 보수는 더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나 회사가 어려울 때 여성이 우선 해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여성에게 가족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 전체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사회가 지속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식사준비,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일이죠.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매

일같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생산 노동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면서 그 가치는 무시되고 폄하됩니다.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뭐 어렵다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면 편한 줄 알아야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최근에 재생산 노동은 가족 밖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미화,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와 같이 이전까지 어머니나 아내 또는 며느리의 일로 여기던 일을 노동자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가족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하는 일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어 매우 낮은 임금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이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둘러싸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태도나 관행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집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가장'이라는 말은 주로 남편을 칭할 때 씁니다. 여기에는 아내와 아이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고 그 하나를 대표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근거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야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는 것이 남편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출산은 여성이 하는 일이지만 여성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의 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가정 안의 아내는 정숙하고 순결할 것을 요구받지만, 다른 여성의 성은 남성 성욕의 대상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포르노나 성매매가 남성들의 문화로 인정되고, 희식 자리와 같이 남녀가 함께 있는 곳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희롱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성억압의 핵심적 장소, 가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과 성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나 방식은 여성에게 부당하고 억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억압의 현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재의 여성억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핵심적인 장소로 가족을 주목합니다.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사는 핵가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늘 지금과 같은 가족이 있었을 거라 생

각하지만, 사회마다 시기마다 지배적이었던 가족형태는 달랐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 한국에서도 1950년대만 하더라도 몇 대가 같은 집에 사는 대가족이 자연스러운 가족형태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것이 보편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족 구성에서 혈연관계가 기준이 아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일하면 가족이었던 것이죠.

가족의 모습이 계속 변해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족형태, 즉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의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꾸려진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즉, 성별분업에 기초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양육에 두고 양육에 적합한 여성의 자질을 장려하고 재생산하는 가족이 바뀔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이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부(富)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과 생활수준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이런 생산과 재생산 과정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말처럼 식량, 가구, 옷,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과 그렇게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여 노동력

과 생활을 재생산하는 것은 가구 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남성, 여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구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가부장적 권위와 엄격한 통제가 있었지만, 어떤 일을 여성의 일이라고 구분하여 무시하고 가치를 낮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가구의 생존과 경제에 필수적이고 중요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 두 과정을 생산은 공적인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재생산은 사적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 때 생산 영역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받았지만,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가 꼭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분리가 나타나던 자본주의 초기 많은 노동자계급의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영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책임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양육담당자로 이루어진 가족은 실제로 남성 혼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르주아에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성별분업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가족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니었죠.

여성의 장소를 사적인 곳으로 제한하고 여성에게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많은 철학자들은 여성은 남성과 같은 합리적인 이성이 없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장소는 가정이고 여성들의 본성에 맞는 최고의 소명은 아이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정성 숭배’라고 부르죠. 가족은 양육과 구성원 간의 친밀함, 바깥세상과 단절된 애정의 공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규정은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노동과 노력을 그저 여성이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여성의 순결과 정숙이 기본적인 자질로 간주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아이를 낳고 훌륭하게 기르는 어머니는 정숙한 성녀여야 할 테니까요. 이런 변화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자질과 특성도 분화되었습니다. 바깥세상의 경쟁에 적합한 용기, 강인함, 논리, 권위, 야심, 이해타산과 같은 자질이 남성다움을 구성했고, 경쟁의 세계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에 필요한 희생, 배려, 부드러움, 이해, 헌신, 연약함, 온화함과 같은 자질이 여성다움을 구성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조건과 가정성 숭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담당자’라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 형태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형태가 모든 계급, 특히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는 없었습니다. 말했듯이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가족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의 벌이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안 되었던 것이죠. 당시 노동자계급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우 좁고 지저분한 주거 환경 때문에 병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남성, 여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적은 임금으로 하루에 12~15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불안정하여 실업과 취업을 반복했습니다.*

* 당시 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몇 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면직물 공장의 한 광경은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곳은 여성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렸고 또 일부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었으며, 매일 12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 시간은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휴식 시간은 두 시간이다. 그들은 정확히 12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방은 열기로 가득 차 있고 악취가 심했으며, 온통 숨털 부스러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젊은 여성들은 모두 창백하고 누렇고 말랐지만 대체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여성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맨발이었다.”

“의료 요원들의 관찰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건강이 악화되었고, 특히 가족 성원 중에서 주로 굶는 사람인 어머니는 창백하고 여위었다.”

“그렇다. 실제로 그녀의 수입과 지출은 그런대로 균형이 맞았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실업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이 함께 다가왔다.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파리에서만도 수천에 달하는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존한다고! 차라리 그들에게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보라.”

따라서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형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매개가 필요합니다. 가장 주요한 매개는 역시 가족임금입니다. 가족임금이란 남성가장의 임금만으로 그 노동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가족임금이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운동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실제 일부 노동자운동은 남녀 모든 노동자가 일정 생활수준 이상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노동자운동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을 가족으로 돌려보내고 남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이고 가족임금을 수용했습니다.*

* 가족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현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족임금을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체제로 확대했을 때 조차 흑인 남성노동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백인 남성노동자들에게도 가족임금이 실현되었던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가족임금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몇몇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뿐이었습니다. 가족임금은 노동자계급이 실제 가정의 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훨씬 큼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이데올로기는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합니다.

노동자운동이 가족임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하는 남녀 노동자 모두가 충분한 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자계급에게는 훨씬 유리한데도 말이죠. 남성노동자들이 악의가 있어서 아니면 어리석어서 가족임금을 목표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혹독하게 노동하면서도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종종 실업에 처해 굶어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 이런 가혹한 세계와 단절된 안식처로서의 가족,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에 의존하는 아내와 아이라는 부르주아 가족의 모습을 자신도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가족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장인이나 숙련노동자와 같은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가족임금을 받고 아내와 아이를 집에 둘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 가족임금은 백인 남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을 이룰 수 있는 물질적인 기초가 생긴 것이죠. 이에 더해 국가도 남성 생계부양자를 상정한 복지제도 등을 통해 핵가족의 확산을 장려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핵가족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가족형태가 되었

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특수하게 구성된 핵가족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나라와 지역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별 가족으로 들어가면 가족마다 사정도 상황도 다 다르겠지요. 모든 가족이 다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여성운동이 집단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가족 내에서 남성과의 관계에 따라 여성의 지위나 상황이 달라질 뿐이겠지요. 그래서 한국의 구체적인 가족의 역사, 형태, 문화와는 다른 측면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가족 형태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여성억압의 현재 상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중심적인 가족형태가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 문화에 따라 변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계급에게 가족임금이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성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남존여비, 현모양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가족임금을 통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허약한 물질적 토대를 보완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고, 아이의 양육,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담당자라는 보완적인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에서도 부부의 상호보완과 일치감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핵가족에 비해 한국의 가족에서 자식이 중요해지는 것도 유교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의 핵가족은 여성에게 훨씬 더 억압적인 문화와 관행을 만

들었습니다. 남성이장의 가족임금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며 소득을 벌어야 했지만, 부인을 일 시키는 남편은 무능하다는 관념 속에서 이런 여성의 노동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성매매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였지만, 여성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순종과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앙하는 여성의 상입니다.

가족분석의 의미

여성억압의 핵심적 장소인 현재 가족 형태의 특징과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족을 분석하는 것이 여성해방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가족형태가 어떻게 여성억압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리라는 성별분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은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정당화함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가족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성은 연약하고 어머니

로서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의 심리적 의존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증가했습니다. 유연하고 낮은 임금의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족과 아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에게 직장과 가사를 모두 잘 하게 해주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성별분업 구조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여성에게 '슈퍼맘'과 같이 일도 잘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가정도 잘 챙기는 여성이 되라는 요구와 압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의 모습과 역할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대에 따라 특히 사회의 체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성역할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핵심 장소로서 현재의 가족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열립니다.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이 늘 무시당하거나 분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방식이 늘 지금처럼 엄마의 헌신과 몰입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여성의 역할과 자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족이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특수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바꾸고 여성의 해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망도 더불어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양육, 애정, 안식처와 같은 가치와 역할을 몰아넣고, 가족이 생존을 위한 경쟁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견디게 만드는 보완물이 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지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성권과 노동권

그렇다면 여성의 억압을 넘어선 우리가 원하는 여성해방은 어떤 것 일까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성이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관련된 것을 모두 삭제하고 가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성억압을 뒤집어서 남성을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는 존재이고, 어떤 성이 우월한가가 아니라 그 차이 자체가 인정되는 가운데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권리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여성의 노동권

여성이 가족에서 부과된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바로 노동권이죠. 여성이 노동권을 획득하는 것은 여성해방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정되는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여성들에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죠. 여성이 가정 밖에 나와서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상하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여성들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조차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드는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내로서 여성의 소득은 그 남편의 임금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에게 ‘반찬값이나 벌러 나온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여성의 일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시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여성 자신의 경제적 독립이나 해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을 보충하

여 가족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게다가 노동권은 여성노동자들에게만 필요한 권리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노동권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권이 실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노동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와 처분을 자본가에게 맡기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일입니다. 남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남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노동 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여성의 노동권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노동 관계의 소멸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종식을 표방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여성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념과 현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노동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권

여성에게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모든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여성, 남성 모두 노동자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노동권에 제약이 더 크다는 사실만 봐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여성권'이라 부를 수 있겠지요.

한 마디로 여성권은 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남녀 관계에 관한 흔한 속설 중에 여성이 싫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튕겨보는 것이고 사실은 좋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속설은 매우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성권의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강제로 장거나 인신 자체를 매매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우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육체나 그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TV나 스포츠 신문, 여러 미디어에서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를 상품화합니다. 성매매나 인터넷으로 신부감을 주문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를 사고파는 일이 일상다반사지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성매매나 국제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모성은 어떻습니까? 모성은 여성의 권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이 하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능이지만 여성이 통제할 수 없고,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는, 사회의 노동력을 낳아주는 의무가 되고 있죠. 이런 현실들은 여성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욕에 대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 성욕의 대상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거나, 남성이 주도적이고 여성은 그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런 규범에 벗어난 여성들은 밝히는 여자라거나 하는 인식이 많습니다. 여성의 성은 남성의

성욕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성의 성욕을 여성 자신의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아버지 또는 남편이 여성을 소유하고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

여성에게 노동권과 여성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성권과 노동권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여성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사회가 변한 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나서서 여성들에게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과 가사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노동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나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하도록 권하는 것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연근무제와 같이 여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출산과 양육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둘 다를 잘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여성해방의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요구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팽창, 비정규직의 확대 기조 속에서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자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불안정한 여성노동을 확대하는 것은 전반적인 노동을 유연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를 촉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흐름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헛갈리기도 합니다. 여성들도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놓인 가족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소득은 가족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고, 여전히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가족을 돌보는 것이며, 여성은 남성가장에게 의존적이라는 현실과 이데올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정책들은 여성의 일과 가족 책임의 부담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효성이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올해 초 <매일경제> 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 기혼여성의 68.8%가 정부의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현실에서 변화는 거의 없음에도, 여성이 일과 가정 양자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도 정부도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만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의 책임이 여성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여성들에게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보다는 어머니나 아내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주어지는 개선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본과 정부에서도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조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여성해방에 다가가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를 위한 운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규정하는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의 역할만을 늘리려는 시도는 여성권과 노동권을 달성하는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많은 역할을 사회에서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일도 하고 가족도 잘 돌보라는 단시간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운동, 여성을 만나다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노동권, 존엄성, 성욕을 가진 주체입니다. 현실에서 억압되어 있는 이런 권리를 실현해가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죠.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라는 노동자운동의 원칙처럼 '여성의 해방은 여성의 힘으로'가 맞겠죠. 무엇보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들이 여성해방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수용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노동조합 활동이나 투쟁에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이 여성들만 하는, 아니면 몇몇 페미니스트들만 하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속해있는 노조와 단위에서 같이해야 하는 운동이죠. 우리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외치며 투쟁할 때 그 노동자는 남성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노동자죠. 그렇다면 여성노동자의 권리 또한 우리 노동자운동의 과제가 되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노동자운동은 저임금, 비정규직, 성차별 등으로 묘사되는 여성노동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자운동이 대응해야 할 문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의 분열을 노립니다. 자본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언제나, 꼭 노동자의 분열이죠. 따라서 자본은 여성-남성,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이 노동자 내부의 차이와 분할을 크게 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노력합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단결은 자본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단결은 그저 하나의 요구로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진정한 단결의 힘이 나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방어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노동자운동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광고>노동자를 위한 핸드북 시리즈 발간 예정

*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자를 위한 핸드북 시리즈에서 페미니즘을 다룬 책이 발간될 계획입니다.

『페미니즘』

<구성>

페미니즘 기본 개괄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의 권리_노동권과 여성권

가족, 여성노동, 재생산노동, 섹슈얼리티, 성폭력, 여성의 정치참여 등 페미니즘의 쟁점들

『여성운동사』

<구성>

변혁운동과 여성운동

역사적 사례들_유토피아 페미니즘, 콜론타이의 실천, 중국 혁명과 여성의 권리 등

2011년 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사회진보연대 |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주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전화 | 02) 778-4001~2

팩스 | 02) 778-4006

이메일 | pssp@jinbo.net

홈페이지 | www.pssp.org